

‘전주 동네복지’ 한국 복지정책 ‘모범’

복지부 추진 올해 주요정책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사업’·전북연구원 ‘마을복지’에 주요모델로 제시

전주시의 동네복지가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복지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시가 지난해부터 소외받는 사각지대 없는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전주형 복지시스템인 동네복지가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에 전주시의 동네복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전북연구원에선 ‘마을복지’라는 명칭으로 동네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2016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미 시작된 전주의 동네복지시스템으로, 전주는 평화동과 서신동, 삼현동, 인흥동, 송천동, 송산동 등 6개 시범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와 보편적 복지 기능을 강화했다. 시범동에는 복지플래너가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동(洞) 단위의 병원, 종교, 사업가 시민운동가 등이 참여하는 동 복지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주거는 물론 환경·위생문제 해



세월호 농성장 찾아

더불어민주당 양행자 전 삼성전자 상무,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외부 영입인사들이 2일 전주 봉남로 세월호 농성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결 등 인간적인 도시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일률적인 복지행정에서 벗어나 행정과 주민이 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찾아내고, 스스로 보살필 수 있는 주민주도 복지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첫 번째 중점과제로 삼은 것도 전주의 동네복지와 같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이다. 읍면동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700개 읍면동(洞) 단위의 병원, 종교, 사업가 시민운동가 등이 참여하는 동 복지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주거는 물론 환경·위생문제 해

결 등 인간적인 도시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전북연구원에서도 최근 정책브리핑을 통해 마을과 주민 중심의 복지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형 마을공동체복지 모델로 ‘마을복지’를 제시했다. 생활권 중심의 마을단위로 세분화해 복지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을단위의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공유와 재분배를 통해 해결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전북지역 정책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이 새로운 복지형 개별급여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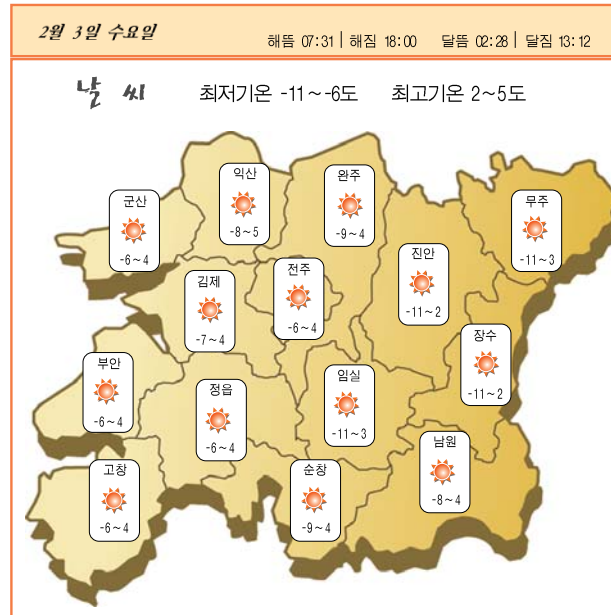
복지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올해 동네복지를 SOS센터, 사회적지원센터 등의 여러 시책과 연계해 전주의 복지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스스로 자립할 능력을 키우겠다는 복지시스템을 적용한 ‘발 굽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도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김승수 시장은 “시공무원들이 시민속으로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전주형 복지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일부 학교 이색적인 졸업식 ‘주목’

졸업시즌을 맞아 일부 학교의 이색적인 졸업식이 예고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6명이 졸업하는 정음 소성초 졸업식은 어느 학교와 다르다.

졸업생들과 교사들이 졸업식날 함께 학교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 때 문, 졸업생들은 졸업식날인 4일 저녁 교사들과 함께 정든 학교에 마지막 밤을 보낼 예정이다.

전주 신동초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을 진행한다. 5일 오전9시에 치러지는 졸업식에는 졸업생 200명이 레드키펛을 통해 입장한다.

최초는 교사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을 생각하다 영희배우들의 레드키펛을 생각하게 됐다”며 “8

개 반 졸업생들이 음악과 함께 포드존에서 사진도 찍고 자유스럽게 입장을 받고 있다.

군산 화현중은 정교생이 참여하는 방승영상제와 졸업축제를 함께 치른다. 양은희 교사는 “이번 영상제와 졸업식은 방승남 학생들이 기획했고 합숙하면서 전체 준비도 맡았다”며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의미 있는 졸업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주공덕중은 재학생들의 뮤지컬 공연, 졸업생들의 독도 플래시몹 행사가 예정됐으며 전주중앙중은 모든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장미꽃을 전달하는 등 이색적인 졸업식이 예고됐다. /고은지 기자

전북 공립 중등교사 합격자 발표

2016학년도 전북 공립 중등교사 임용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일 최초 응시자 1,976명 중 제1차 시험에서 320명을, 제2차 시험에서 207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je.go.kr) 알림마당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성적은 합격자 발표 후 5일 동안 중등교원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북도교육연수원에서 신규 임용 예정자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은지 기자

누리예산 편성 교육청만 목적예비비 우선지원

교육부, 전액 편성 100%·일부 편성 50% 지원... ‘치사한 보복이다’ 비난 불리

교육부가 2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대구, 대전 등 12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만 목적예비비를 우선지원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일부 시도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하는 것은 치사한 보복이다”며 “교육청 길들이기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12개월 예산을 전액 편성한 대구(148억원), 대전(85억원), 울산(63억원), 경북(191억원), 충남(144억원), 세종(22억원) 교육청에 목

적예비비 100%를 지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부산(108억원), 충북(55억원), 인천(66억원), 전남(86억원), 경남(106억원), 제주(29억원)에게는 목적예비비 50%가 지원됐다.

하지만 교육청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북, 서울, 경기, 광주, 강원은 목적예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과 전북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으며 경기와 광주, 강원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 몇 개월의 예산이라도 편성한 우리의 노력은 볼거림이 됐다”며 “이미 재원이 있어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또 한번 지원을 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서울시장의 교육위원장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발 잘 듣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주겠다고 해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김문수 서울시장의 교육위원장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발 잘 듣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주겠다고 해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고은지 기자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덕진공원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관광효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을 재검토하고 덕진공원을 전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로 조성한다.

시는 2일 시장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용역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옥마을을 관광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전주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덕진공원을 전주의 새로운 대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덕진공원의 경우 ‘천년의 역사를 하늘아래 품고 일상으로 다가오는

품격있는 천하일품! 덕진공원’을 비전으로 덕진지 주변과 건지산까지 아울러 덕진제방의 역사자원과 건지산의 자연자원을 활용키로 했다.

또한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은 크게 덕진지 주변공간과 건지산일대의 두 공간으로 나누어 계획됐다. 덕진지 주변은 ‘천년 덕진지에 피어난 순수한 사람’이라는 테마로 △천년 덕진지 사랑터마화 △인접자원과 연계강화 △야경 및 야간활동 특화 등의 개발 전략, 건지산 일대는 ‘전주의 그린하트(Green-Heart), 건지산’을 테마로 덕진지와의 관광연계 강화, 덕진공원 생태네트워크 복원, 휴양 및 힐링기능의 강화 등의 개발전략이 각각 세워졌다. /김영재 기자

완주 으뜸상품권과 함께 행복한 '설날'

우리 이웃의 행복을 키웁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완주 으뜸상품권!

완주 으뜸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표 "으뜸상품권"으로 지난 5월, 상품권 제작을 시작으로 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 등 관내 12개 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고 1,000여개 가맹점을 확보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완주 으뜸상품권이 우리 이웃의 행복지킴이입니다.

3% off

완주군 내 소재한 모든 농협에서 액면금액의 3% 할인 판매

으뜸상품권 사용처 |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규모 슈퍼,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의 으뜸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으뜸상품권 구매처 | 관내 지역농협

문의 | 완주군 일지리경제과(290.2402) 및 읍면사무소